

# 高麗·朝鮮時代 氏族의 移住地域 研究

五 漢 錫\*

《차 레》

- 1. 序 論
- 2. 資料의 內容과 問題點
- 3. 高麗·鮮初의 移住地域
  - (1) 移住의 性格
  - (2) 主要 移住地域

- 4. 朝鮮時代의 移住地域
  - (1) 移住의 性格
  - (2) 主要 移住地域
- 5. 結 論

## 1. 序 論

오늘날의 人口移動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移住가 대부분이며 규모 또한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농민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생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이주해간 결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전의 정주성이 강했던 농경사회에 있어서도, 특히 전제정치 아래 특정계급의 권익이 옹호되던 전근대에 있어서도 이주가 이루어져 왔다. 조선 초에 실시된 號牌法은 대다수 良民들의 이주를 금하였지만, 특정 호족이나 관료는 本貫地를 옮겨 타 군현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풍부한 기록을 지리지나 읍지에 남겨놓고 있음을 보게 된다. 高麗 太祖가 姓貫을 부여한 이후, 후세에 父系血統과 貫鄉을 중시하는 특정 씨족으로 불리우게 된 血族集團 혹은 씨족 집단은 支配勢力을 구성하는 여러 身分集團으로서 移住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의 이주를 넓게는 人口移動, 좁게는 氏族의 居住地移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군현제의 실시와 함께 姓貫이 정해진 지방의 토착세력은 일부는 在地吏族으로, 일부는 蔭叙와 科擧를 통하

여 在京官人으로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멸문과 확대를 겪고 居住地移動도 때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은 혈연적인 연고가 있는 장소나,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기에 좋은 吉地를 찾아 나섰다고 보여진다. 가계를 계승하면서 이들이 居住地選定에 터득한 지혜는 오늘날 人口移動의 밑바닥 어느 한곳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찾아나선 ‘살기 좋은 곳’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은 그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그 일부를 대답하고 있다. “대저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인심(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sup>1)</sup>라고 말하여 地理·生利·人心·山水의 네 가지 기준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이 李重煥 자신의 고유한 안목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士大夫로서 살기 원하였던 대부분의 우리 선조들이 지녔거나 공감할 불려 일으킬만한 이야기로서 과거 씨족들의 居住地選定에 많이 작용한 思考일 것이다. 특히 地理를 살펴 장차 자손 대대로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집터를 골라야 한다고 한 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었을 것이다. 실제

\* 江原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教育科 助教授

1) 李重煥(李翼成 譯), 1975, 擇里志, 乙酉文化社, p. 161.

李重煥은 네가지 기준 아래 팔도의 각처 살만한 곳을 소개하고 평가였다. 그의 평가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 어떤 씨족들이 주로 어떤 지역으로 얼마나 이주해갔는가를 살펴 그들의 移住性格과 要因을 규명해 보는 것도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는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의 姓氏條 중에서 移住姓氏라고 할 수 있는 ‘來姓’, ‘續姓’, ‘入姓’ 등을 자료로 高麗・朝鮮時代 氏族들이 주로 이주해간 지역을 밝혀보려고 한다. 즉 한반도 상에서 그들이 주로 많이 이주해 간 지역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왜 그 지역이 씨족들의, 또는 특정 씨족들의 移住適地였는가 하는 문제는 人口移動의 측면에서 移出地와 移住經由地, 經路 및 距離, 혹은 이주해 가지 않은 土姓과의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해야만 풀릴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한편, 本考에서 移住時期를 애매하게 高麗・朝鮮時代라고 한 이유는 姓氏關係資料가 土姓分定 이후 ‘古籍’ 등의 各種 姓氏錄에 계속 보완・보충을 거듭하며 전해내려 왔기에 移住地域의 변화에 따른 명확한 時期區分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輿地圖書」의 편찬 시기가 1750년 경인 점으로 미루어 엄밀히 말하여 高麗・朝鮮前, 中期라고 해야 할 것이다.

姓氏集團에 관한 研究로는, 역사학에서 주로 土姓의 形成과 分化, 支配勢力 등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었고,<sup>2)</sup> 지리학에서 同族村에 초점을 맞추어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sup>3)</sup> 同族村 研究는 다양한 地理的 縮尺 위에서 入鄕祖와 이후의 分家 및 貫行, 이에 따른 촌락과 耕地의 개척 과정 그리고 명문 씨족의 中・短距離移動과 方向, 村落景觀 등을 주된 主題로 삼아왔다. 하지만 어떤 地域의 어떤 씨족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연구의 방향 설정 등 아직도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편이다. 이에 本考가 一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資料의 內容과 問題點

고려 태조 王建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효율적인 지방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 호족・공신의 신분을 재편성할 의도로 각 군현의 名號와 그에 따른 土姓을 分定하였다. 예를 들어 德水李氏란 德水縣의 土豪 6姓 중의 하나이며,<sup>4)</sup> 德水縣은 고려 현종 9년에 開城府에 예속되고 조선 세종 24년에 海豐郡과 합병되어 豐德郡이라 불리워져 온 연혁이 있다. 이렇게 혈연적・지연적 이중의미를 지닌 土姓은 성의 생성・분화뿐 아니라 그 성의 出自地인 本貫의 연혁이란 뜻까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각 군현마다 邑司를 중심으로 거주하던 土姓(集團)은 上京從士・流移・소멸 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여, 그 결과 기존 土姓의 流亡에서 ‘亡姓’이 생기고 北境開拓에 따른 徒民入居에서 ‘入鎭姓’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 이동에서 ‘京來姓’, ‘來姓’, ‘入姓’ 등과 여말선초 列邑間의 鄕吏調整策에 의하여 ‘續姓’이 대량 발생케 되었다.<sup>5)</sup>

이들 중 本考는 ‘入鎭姓’, ‘來姓’, ‘入姓’, ‘續姓’ 등을 자료로 하여 高麗・朝鮮時代 氏族들의 移住地域을 구명하려는 것이다. 군현 土姓에서 上京從士한 土族들에게는 姓貫과 內外世系, 履歷 등이 기재된 ‘氏族’ 또는 ‘政案’이 비치되어 任官과 銓注에 이용하였듯이, 각 읍사에는 吏族의 명부인 ‘吏案’ 또는 ‘壇案’이 비치되어 향리의 선임과 승진, 鄕貢과 其人 및 事審官 선임 등에 활용하였으므로<sup>6)</sup> 여초 이래 중앙과 지

2) 李樹建,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서울, p.512.

3) 楊普景, 1980, “半月面 四里 同族部落에 대한 研究: 起源과 發達過程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第7號, pp. 29~52.

金德鉉, 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景觀: 安東地方의 土族村落을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第10號, pp. 241~251.

4)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豐德郡 姓氏條에 德水에는 李・金・張・秦・員・車의 六姓이 기재되어 있다.

5) 李樹建, 1984, 前揭書, pp. 5~6.

6) 上揭書, 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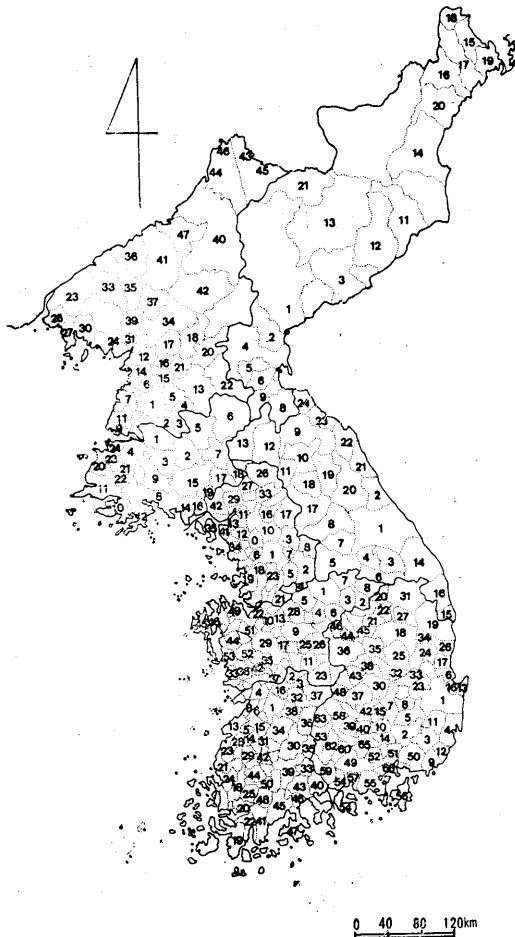


그림 1. 朝鮮初의 主要郡縣

(京畿道) 0. 漢城 1. 廣州 2. 驪興 3. 楊根 4. 陰竹 5. 利川 6. 果川 7. 川寧 8. 砥平 10. 楊州 11. 原平 12. 高陽 13. 交河 16. 抱川 17. 加平 18. 水原 19. 南陽 21. 安城 23. 龍仁 26. 鐵原 27. 朔寧 29. 長湍 33. 連川 34. 富平 35. 江華 41. 通津 42. 開城(忠清道) 1. 忠州 2. 丹陽 3. 淸風 4. 槐山 5. 陰城 6. 延豐 7. 堤川 8. 永春 9. 淸州 10. 天安 11. 沃川 17. 燕岐 13. 木川 22. 牙山 23. 永同 25. 懷仁 26. 報恩 28. 鎭川 29. 公州 33. 藍浦 36. 鴻山 37. 恩津 44. 洪州 45. 泰安 46. 瑞山 42. 扶餘 49. 唐津 51. 禮山 52. 青陽 53. 保寧 35. 完山(慶尙道) 1. 慶州 2. 密陽 3. 梁山 4. 蔚山 5. 淸道 6. 興海 7. 大丘 8. 慶山 9. 東來 10. 昌寧 11. 彥陽 12. 機張 13. 長髻 14. 靈山 15. 玄風 16. 迎日 17. 淸河 18. 安東 19. 寧海 20. 順興 21. 醴泉 22. 榮川 23. 永川 24. 青松 25. 義城 26. 盈德

27. 禮安 30. 仁同 31. 奉化 32. 義興 33. 新寧 34. 眞寶 35. 比安 36. 尙州 37. 星州 38. 善山 39. 陝川 40. 草溪 42. 高靈 43. 閒寧 44. 咸昌 45. 龍宮 46. 聞慶 48. 知禮 49. 晉州 50. 金海 51. 昌原 52. 咸安 53. 咸陽 54. 昆南 55. 固城 56. 巨濟 57. 泗川 58. 居昌 59. 河東 60. 珍城 62. 山陰 63. 安陰 65. 宜寧 66. 鎭海(全羅道) 1. 全州 2. 珍山 3. 錦山 4. 益山 5. 古阜 6. 金堤 8. 萬頃 12. 龍安 13. 扶 14. 月邑 15. 泰仁 16. 高山 18. 羅州 19. 海珍 20. 靈巖 21. 靈光 22. 康津 23. 茂長 24. 咸平 25. 南平 28. 興德 29. 長城 30. 南原 31. 淳昌 32. 龍潭 33. 求禮 34. 任實 35. 雲峯 36. 長水 37. 茂朱 38. 鎭安 39. 谷城 40. 光陽 41. 長興 42. 潭陽 43. 順天 44. 茂珍 45. 寶城 46. 樂安 47. 高興 48. 綾城 50. 和順 54. 濟州 55. 旌義 56. 大靜(黃海道) 1. 黃州 2. 瑞興 3. 鳳山 4. 安岳 5. 遂安 6. 谷山 7. 新恩 8. 海州 9. 載寧 10. 瓮津 11. 長滿 12. 康翎 14. 延安 15. 平山 16. 白川 17. 牛峯 18. 兎山 19. 江陰 20. 豐川 21. 文化 22. 松禾 23. 殷栗 24. 長連(江原道) 1. 江陵 2. 襄陽 3. 旗善 4. 平昌 5. 原州 6. 寧越 7. 橫城 8. 洪川 9. 淮陽 10. 金城 11. 金化 12. 平康 13. 伊川 14. 三陟 15. 平海 16. 蔚珍 17. 春川 18. 狼川 19. 楊口 20. 麟蹄 21. 杆城 22. 高城 23. 通川 24. 歙谷(平安道) 1. 平壤 2. 中和 3. 祥原 4. 三登 5. 江東 6. 順安 7. 甑山 9. 三和 11. 龍岡 12. 安州 13. 成川 14. 肅川 15. 慈山 16. 順川 17. 价川 18. 德川 20. 孟山 21. 殷山 22. 陽德 23. 義州 24. 定州 25. 麟山 26. 龍川 27. 鐵山 30. 宜川 31. 嘉山 32. 完寧 33. 朔州 34. 寧邊 35. 昌城 36. 碧潼 37. 雲山 39. 泰川 40. 江界 41. 理山 42. 熙川 43. 閔延 44. 慈城 45. 茂昌 46. 虞芮 47. 渭原(咸鏡道) 1. 咸興 2. 安平 3. 北清 4. 永興 5. 高原 6. 文川 8. 安邊 9. 宜川 11. 吉州 12. 端川 13. 甲山 14. 鐵城 15. 慶原 16. 會寧 17. 鍾城 18. 穩城 19. 慶興 20. 富寧 21. 三水

방에는 姓氏 關係資料가 전해 내려오고 ‘古籍’<sup>7)</sup>이나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등에도 기재되게 되었던 것이다. 本考에서 이용하는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은 각각 편찬된 시기가 1454년, 1481년 경으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姓氏條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서로 거의 같거나 누락된 성씨가 간혹 있어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간주된다. 양 지리지가 성립된 배경에 따라 그 체제나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상호 보완하여 高麗·朝鮮初까지의 移住記錄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와 달리 「輿地圖書」의 姓氏條는 鮮初 당시의 姓氏 뿐 아니

7) 「世宗實錄地理志」의 廣州牧 加屬姓條에 「此六姓據古籍及今本道關錄之其云加屬者 古籍所書也 後皆倣此」란 기사가 보인다. 여기에서 따왔다(傍點: 引用者).

라 그 이후에 추가된 姓氏를 대부분 〈新增〉이란 별칭을 달면서 보충 기재하고 있어 「輿地圖書」의 성씨들 중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것을 합한 성씨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자연 적어도 朝鮮中期까지의 각 군현에 이주해 온 성씨가 되는 셈이다. 물론 「輿地圖書」의 기록이 「世宗實錄地理志」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방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재 상의 애매함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공정하게 자료 수집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地理志의 ‘續姓’·‘入姓’·‘來姓’ 등의 특정 성씨에 그의 出自地인 本貫을 곁들여 부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비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sup>8)</sup> 이때 부기한 貫鄉이 1次의인 移出地임은 분명하나 몇 번의 경유지를 거쳐 해당 군현으로 이주해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군현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특정 군현의 속현이나 鄉·所·部曲의 姓氏集團이 해당 군현 내에서 이동할 경우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世宗實錄地理志」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의 姓氏資料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들 지리지는 중앙의 명을 받아 각 지방 수령들이 보고한 자료나 읍지를 취합하여 편찬한 결과이므로, 당시 각 군현에 거주했던 성씨들의 조사가 객관성·신빙성·정확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자세함이나 성의에 정도의 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移住姓氏의 수를 지도화할 때 어떠한 간격으로 빈도수를 구분해야 하는지, 혹은 각 군현의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本考는 盧道陽 教授가 작성한 조선시대의 지도를 기본도<sup>9)</sup>로 이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보충하였다(그림 1). 결국 고려시대 氏族의 移住地域은 조선시대의 군현을 경계로 하여 표시한 셈이 된다.

양시대를 통털어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빈번하였다. 이 경우는 각 지리지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무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군현의 名號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들 지리지의 것만을 따랐고 그 이전의 연혁은 참고로만 할 뿐이다.<sup>10)</sup> 군현 명칭의 변경은 本貫地別 姓氏를 조사할 때 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名號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 3. 高麗·鮮初의 移住地域

#### (1) 移住의 性格

고려 초 이래 조선 초까지 각 군현별 씨족들의 移住, 엄밀히 말하여 移入은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334개의 전체 군현 중에서 他貫 氏族의 移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군현이 71개나 되고, 여기에다 이주가 미미하거나 보통인 것을 합한 수치가 전체의 9할을 차지하는 사실 또한 이를 입증하고 남는 셈이다(표 1).<sup>11)</sup>

지배집단인 土豪들마저도 居住地移動이 쉽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土姓들이 점차 농경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연고가 없는 한 무리하게 他貫에서 경지 개척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 遠因을 찾아볼 수 있다. 農法은 休閒農業에서 連作農業으로 서서히 발전하여 고려 중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었던 것

表 1. 移入氏族數別 郡縣數

移入程度(氏族數)	군현 수	비율(%)
미 미(0~4)	227*	68.0
보 통(5~12)	75	22.0
활 발(13~19)	20	6.0
아주활발(20~90)	12	4.0
합 계	334	100

\* 전혀 씨족의 이입이 없는 군현 71(비율 21%)

8) 「輿地圖書」에는 土姓, 亡姓, 入姓, 續姓 등의 구분없이 모든 姓氏를 기재하고 있다.

9) 盧道陽, 1968, “15世紀 朝鮮의 農牧業”, 明知大學論文集, 제 2 집, pp.143~190. 附錄.

10) 各號가 변경된 경우는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발간한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7권(색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1) 本考에서 각 군현이나 도명 다음의 괄호속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는 氏族들의 수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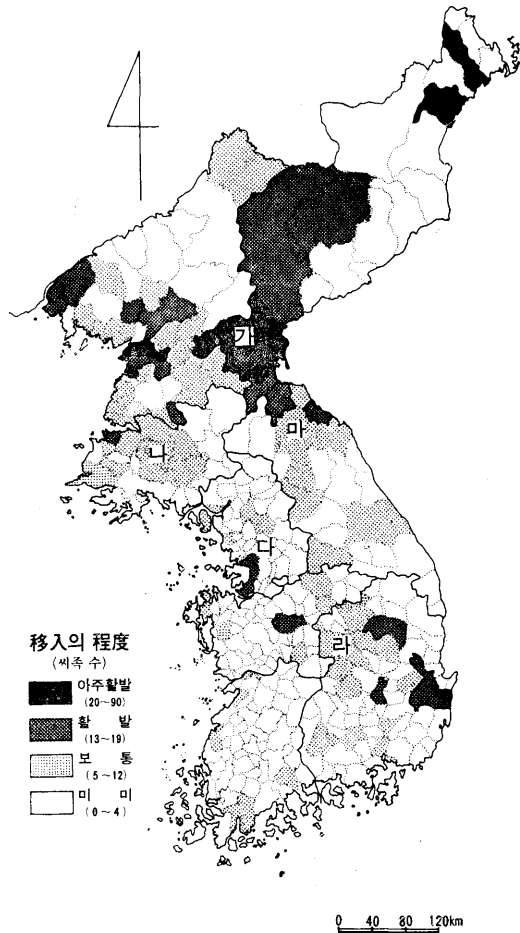


그림 2. 高麗·鮮初의 主要 移住地域

(가-千里長城 附近地域, 나-載寧江 流域地域, 다-畿湖·湖南地域, 라-洛東江 上流地域, 마-江原北部地域)

이다.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지방 호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하여 타지방 호족이나 중앙의 귀족들이 族勢가 약한 군현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주해 갈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중부 및 이남지방에 있어서 씨족의 移入이 활발한 군현은 고려 개국 초부터 風水地理說을 신봉하게 된 배경으로 보아, 훌륭한 明堂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주해 가지 않았을 까도 풀이된다. 洛東江 상류의 安東·醴泉·尙州·善山·星州 등지는 발농사 중심에서 농농사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간 고려 중기 이후의 農耕技術로 보아, 딴 지방보다 많은 씨족이 이

주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구명해 볼 문제이다. 水原·淸州·慶州 등지도 활발한데, 이는 이들의 연혁이 길고 名號의 品階도 높은 것으로 보아, 大豪族·名門貴族들과의 통혼 관계에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高麗·鮮初에 있어서 눈에 띄는 현상은 수많은 씨족들이 이른바 北境地帶로 이주해간 사실이다. 함경도의 文川·永興·定平·安邊과 평안도의 孟山·順天·安州·祥原 등이 아주 이입이 활발했으며, 그 주변부인 肅川·慈山·永柔·義州·龍川·永邊·泰川 등이 평안도에서 咸興·高原·宜川·三水 등이 함경도에서 비교적 활발한 현이었다. 會寧과 種城도 빠트릴 수 없다. 강원도의 杆城·通川과 황해도의 長連 등도 이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境地帶에 많은 씨족들이 이주해 간 이유는 고려·조선초를 통틀어 끊임없이 추구해 온 北方政策과 이를 뒷받침한 移徙政策에 있다. 尹璣이 9城開拓을 한 후 부단히 下三道의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한 노력은 이러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조선 초에 四郡六鎭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경역이 확정된 것도 사실 부단한 徙民政策이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2) 주요 移住地域

### 1) 千里長城 부근 地域

고려 德宗 2年·靖宗 10년간에 축조한 千里長城은 고려 태조가 高句麗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여 북진정책을 써서 淸川江까지 국경을 넓힌 이후 이루어진 일단의 국경선으로,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의 廣浦를 대개 잇는 線이었다. 千里長城의 以南, 즉 統一新羅의 국경선이었던 大同江·永興灣을 잇는 線 사이의 地域은 그 후에 이루어진 咸興平野 일대의 9城開拓과 함께 수많은 씨족이 이주해 온 새로운 植民地域이었다(그림 2의 가) 拓境設邑과 동시에 以南五道の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州·鎭의 행정실무를 담당해 나갈 향리 자원과 현지 방어의 토병 확보, 그리고 군량·군수의 현지 조달을 위하여 개간 정착할 농민을 필요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sup>12)</sup>

12) 李樹建, 1984, 前揭書, p.105.

표 2. 北境地帶의 道別·貫鄉別 移入된 氏族數

北境地帶 氏族數	平 安 道		咸 鏡 道	
	貫鄉別 移入된 氏族數		貫鄉別 移入된 氏族數	
黃海道 (합계 225)	海州 34 豐川 28 延安 13 安岳 12 平山 11 白川 11 遂安 9 黃州 9 長淵 8 載寧 5 信川 4 文化 5 鳳山 5 兎山 4 殷栗 3 谷山 3 牛峰 2 覺津 1 康翎 2 (합계 169)		延安 8 海州 7 谷山 14 白川 6 遂安 4 兎山 4 黃 州 3 新溪 3 安岳 2 康翎 1 豐川 1 江陰 1 長淵 1 鳳山 1 (합계 56)	
平安道 (합계 33)	三和 6 龍岡 6 中和 5 順安 2 祥原 1 理山 1 義州 1 江東 1 咸從 2 陽德 1 三登 1 江西 1 平壤 1(합 계 29)		義州 1 陽德 2 孟山 1 (합계 4)	
京畿道 (합계 119)	江華 5 水原 4 金浦 4 交河 3 安山 3 長湍 2 砥平 1 廣州 1 加平 1 南陽 1 積城 1 果川 1 龍仁 1 仁 川 1 坡州 1 鐵原 1 豐德 1 陰竹 1 漢城 1 衿川 1 開城 6 (합계 41)		楊州 10 鐵原 7 安城 6 安峽 6 振威 5 利川 4 高 陽 4 坡州 4 開城 2 江華 4 通津 3 富平 3 楊根 3 衿川 3 陽城 2 驪州 2 陰竹 2 麻田 1 仁川 1 朔 寧 1 交河 1 廣州 1 龍仁 1 竹山 1 水原 1(합계 78)	
慶尙道 (합계 95)	密陽 7 尙州 5 慶州 5 晉州 5 青松 3 安東 3 星州 2 義城 2 南海 1 金海 1 咸昌 1 昌寧 1 居昌 1 迎 日 1 醴泉 1 淸道 1 禮安 1 (합계 41)		長髯 7 蔚山 6 永川 5 晉州 5 慶州 4 陝川 3 咸 昌 2 寧海 2 盈德 2 醴泉 2 昆陽 2 知禮 2 青松 1 山陰 1 新寧 1 三嘉 1 密陽 1 善山 1 金山 1 星 州 1 迎日 1 淸道 1 居昌 1 金海 1 (합계 54)	
全羅道 (합계 54)	全州 10 南原 6 光陽 3 靈光 2 羅州 2 茂長 2 扶 安 2 光州 2 興陽 1 長水 1 順天 1 龍潭 1 古阜 1 海南 1 南平 1 咸悅 1 (합계 37)		全州 3 南原 2 益山 2 昌平 1 光州 1 靈光 1 玉 果 1 高山 1 羅州 1 長興 1 康津 1 錦山 1 任實 1 (합계 17)	
江原道 (합계 64)	春川 3 寧越 3 洪川 2 平康 1 原州 1 江陵 1 蔚珍 1 三陟 1 (합계 13)		平康 8 春川 7 淮陽 6 金城 7 伊川 5 平海 5 金 化 3 狼川 2 洪川 2 三陟 2 通川 1 楊口 1 麟蹄 1 歙谷 1 (합계 51)	
忠淸道 (합계 49)	忠州 6 公州 4 洪州 3 淸州 2 溫陽 2 林川 1 韓山 1 牛山 1 庇仁 1 青山 1 連山 1 (합계 23)		稷山 3 淸州 4 永同 3 瑞山 3 天安 2 定山 2 扶 餘 2 淸風 1 文義 1 禮山 1 公州 1 藍浦 1 結城 1 平澤 1 (합계 26)	
咸鏡道 (합계 76)	安邊 8 德原 2 高原 1 永興 1 會寧 1 (합계 13)		安邊 23 德原 15 永興 7 文川 8 高原 9 定平 1 (합계 63)	

註) 其他 [군현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치를 알수 없는 것들]: (平安道) 沔正 1 洞州 6 丘縣 1 宜州 1 通口 1 獐州 1 光利 1 德安 1 今山 1 潘南 1 興州 1 凍州 1 柵城 1 唐山 1 光里 1 (합계 20), (咸鏡道) 樂安 1 監津 1 靈山 1 龍口 1 成州 1 海令 1 會尾 1 淸河 1 尙質 1 鳳化 1 彩雲 1 現德 2 鐵關 1 派川 1 靜戍 2 農壤 1 開州 3 永通 2 鳥西兒 1 燕岐 2 義安 1 陰守 8 堤川 2 牟松 1 鎮州 1 興口 2 通口 5 守德 1 (합계 47).

千里長城 附近地域 중에서도 永興平野를 중심으  
로 한 定平(90)·永興(72)·文川(53) 등은 넓고  
기름진 들에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였던 관계로  
移住氏族의 수가 가장 많은 군현의 하나가 되었  
다. 그 다음으로 關東·關西를 이어주는 통로상  
에 위치한 孟山(21)·安州와 博川平野에 이르는  
安州(36)·順川(24)·殷山(10)이 뒤를 잇고 있  
다. 이들 주변의 高原(17)·宜川(13)·安邊(24)  
·寧邊(16)·泰川(15)·肅川(19)·慈山(19)·永

柔(17) 등도 빼놓을 수 없이 移民開拓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의 平安道·咸鏡道로 이주해 간  
씨족들의 本貫地를 도별, 貫鄉別로 조사해 보면  
<표 2>와 같다. 함경도와 평안도 내에서의 이동  
은 별개로 하더라도, 兩道에 이주해온 貫鄉別  
氏族數를 道別로 보면, 황해도가 225 씨족으로  
첫째이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14, 경상도 93,  
강원도 70, 전라도 56, 충청도 48의 순이다. 황

해도와 경기도가 많음은 居住地移動에 있어 거리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下三道 중 경상도가 많은 것은 함경도에의 이주 통로가 강원도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열려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나, 평안도에의 移住數가 황해도 다음으로 많은 것은 알 수 없다. 즉 평안도로 이주해간 씨족들은 황해도(169)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경상도(41)·전라도(37)·경기도(41)의 순이며, 함경도는 경기도(73)·황해도(56)·강원도(57)·경상도(25)의 순서인 것이다.

貫鄉別로는 海州(41)·豐川(29)·延安(17)·白川(13)·遂安(17)·谷山(17)·安岳(14)이 대단히 활발하게 北境地帶로 이주해간 군현들이며 全州(13)·楊州(10)·春川(10)·晉州(9)·慶州(9)·平康(9)·密陽(8)·南原(8) 등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주해 갔던 것이다. 海州 吳(15)·海州 崔(7)·豐川 金(6)·遂安 李(6)를 제외하고 대개 姓貫別 移住 횟수가 2번 정도 나타날 뿐이다. 이는 全郡縣의 특정 姓氏가 집중적으로 北境開拓에 앞장섰다가 보다는 골고루 이주해 간 것으로 여겨진다.

## 2) 九月山과 載寧江流域

九月山(954m), 達磨山(596m), 慈悲山(691m) 등을 둘러싸인 載寧江流域은 고려·조선초 中部以南地方에서 江原北部 地域이나 洛東江 上流地域과 더불어 씨족의 移入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長連(18)·鳳山(12)·黃州(11)가 두드러지고 安岳(6)·載寧(6)·平山(6)이 그 다음 정도이다. 安岳과 殷栗의 접경에 위치한 九月山이 名山으로 알려져 와 移入의 흡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平壤平野와 이어진 載寧平野가 일찍부터 농사짓기에 적합하여 關西地方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농업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載寧江이 大同江과 합류함으로써 해서 關西關北의 北方開拓 통로로서의 구실 또한 지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의 나).

## 3) 金剛山과 江原北部地域

金剛山(1,638m), 雪岳山(1,708m)의 名山과 東海의 碧海는 많은 씨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歙谷의 侍中臺·通川 叢石亭·高城

三日浦·杆城 淸問亭·襄陽 靑草湖 등을 꼽지 않더라도,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며 물과 들이 맑아 누구나 한번쯤은 정자를 지어놓고 살아가고 싶은 이곳은 다투어 이주해 올만한 지역이다. 북한강 상류의 春川(11)·狼川(5)·金城(10)·淮陽(6) 등은 金剛山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이며, 歙谷(6)·通川(15)·高城(7)·杆城(16)은 좁고 긴 해안을 따라 좋은 경치가 많은 군현인 것이다. 특히 淮陽에서 鐵嶺을 넘거나,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元山에 도달하는 교통로는 北方開拓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왔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그림 2의 마).

## 4) 小白山과 洛東江 上流地域

洛東江 中·上流를 이루고 있는 乃城川·甘川·利安川·滑川 등의 유역분지는 들이 비교적 넓고 명황하며 수려하여 일찍부터 씨족들의 移入이 활발하였다. 安東(15)과 尙州(11)를 중심으로 한 醴泉(10)·龍宮(5)·比安(6)·義城(5)·善山(9)·開寧(9)·金山(6) 등지는 風水의 吉地로 알려져 왔거나, 태백·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북방 오랑캐나 왜구의 침입 혹은 중앙의 권력 다툼을 피하기에 적합하였던 곳으로 생각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慶州(19)·大丘(18)·密陽(11)은 역사가 깊고 교통이 편리하여 士豪들 간의 교류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여진다(그림 2의 라).

## 5) 畿湖와 湖南地域

한반도 상에서 太白山脈의 以西와 滅惡山脈의 以南은 이른바 畿湖와 湖南地域이다. 전반적으로 씨족들의 移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미한 이 지역은 씨족들의 이주를 불러 일으킬만한 흡인력이 적었다기 보다는, 중앙의 王族이나 官僚의 비호를 받아 비교적 안정된 土着勢力이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京畿縣을 중심으로 해서 官使들에게 주어졌던 科田이 세습됨으로 他貫의 豪族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 적었던 것이다. 淸州(16)·水原(15)만이 두드러지게 활발하다. 이들은 아마 畿湖地方의 여러 군현들 가운데 移住의 통로 구실을 했거나, 중앙 귀족과 접촉이 빈번하여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그림 2의 다).

#### 4. 朝鮮時代의 移住地域

##### (1) 移住의 性格

朝鮮後期에 이르러 되면 氏族들의 移住가 그 이전의 高麗·鮮初 보다는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된다. 移入이 활발하거나 아주 활발했던 군현의 수가 거의 3배나 늘어나고, 이주가 별 미미했던 군현도 그 전의 7할에서 5할로 줄어든 것이다. 씨족의 이입이 전혀 없는 군현의 비율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활발한 군현수와 미미한 군현수의 차이가 적어져 이입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移入氏族數別 郡縣數

移入程度(氏族數)	군현 수	비율(%)
미 미(0~5)	173*	51.0
보 통(6~11)	59	18.0
활 발(12~24)	70	21.0
아주활발(25~78)	34	10.0
계	336	100

\* 전혀 씨족의 移入이 없는 군현의 수 : 129(38%)

이러한 현상은 시비법과 이양법 및 二毛作農法 등 농업 기술의 발전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당시의 농법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이루게는 하나 보다 많은 농업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깊숙한 산간 지대에서의 耕地開拓과 병행하여 평야지대에서의 人口流入 또한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오면 전체 인구의 성장이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즉 퇴비를 만들고 관개시설을 축조하며, 벼 못자리를 썰어 二毛作을 실시하기에 요구되는 많은 노동력이 투여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朝鮮 後期가 되면 이미 군현제도가 정착되어 더 이상 本貫地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특정 姓貫을 지닌 씨족 내에서의 分派作用이 심화되어 派譜를 더욱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조선 후기에 이르러 씨족들이 本貫地를

떠나 山間地나 他貫에서 농토를 개간하는 移住가 이루어진 것은 농업 경계의 발달과 군현 제도의 정비로 말미암은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人口成長의 산물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政治·軍事의인 요인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기술상의 발전도 그 보급에 있어 큰 地域的 差異가 났다. 조선 후기까지 씨족의 이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군현이 대부분 嶺湖南地方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 연유는 영·호남지방이 灌溉와 二毛作에 유리한 지대임을 고려할 때 분명히 자명해진다. 전라도의 전체 57개 군현 중 씨족의 이입이 활발하거나 아주 활발했던 군현이 37개나 되고 경상도의 경우는 71개 중에서 27개이다. 嶺·湖南地方 이외에 충청도의 淸州·永同·황해도의 甕津, 평안도의 龍川·定州·龍剛·慈山, 함경도의 永興·利城·穩城 등지도 대표적으로 뚜렷하다. 이들 지역으로 이주한 주된 요인은 農耕技術의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高麗·朝鮮時代를 통틀어 씨족의 이입이 활발했던 군현은 함경도의 永興, 평안도의 安州·順川·慈山·泰川·龍川, 충청도의 淸州, 경상도의 安東·大丘 등이다. 이들은 명실공히 氏族移住의 흡인구역함을 한 것이다.

과거 載寧江流域과 江原北部地域은 朝鮮時代에 계속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의 주변 이남으로 이동한 정도인 반면, 關北·關西의 北境開拓地帶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氏族들의 이주지였다. 이는 아마 地理的 慣性(geographical inertia)이 작용하여 移入의 주된 지역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畿湖地方은 職田이나 科田制의 전통이 뿌리깊게 남아 있던 탓인지 의견 상으로는 지난 시대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해안지대로의 이주가 눈에 띄는데, 이는 壬辰·丙子 兩亂의 영향을 받아서이거나, 해안 간척에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2) 主要 移住地域

###### 1) 湖南地域

오늘날의 이른바 湖南地域 중에서도 노령산맥 이남의 영산강 유역은 高麗·鮮初 씨족들의 집중적인 이입 지역이었던 北境地帶와 필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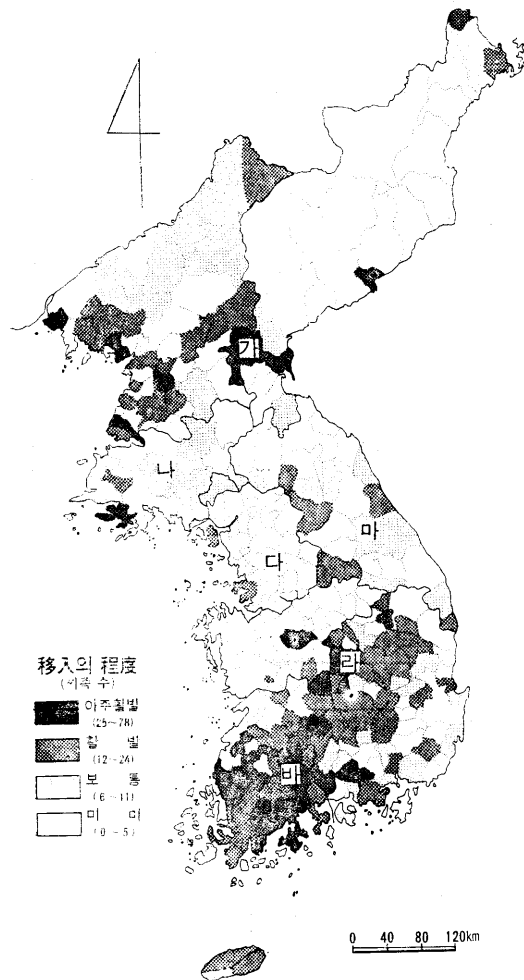


그림 3. 朝鮮中·後期の 主要 移住地域

(가-千里長城 附近地域, 나-載寧江 流域地域, 다-畿湖地域, 라-洛東江 中·上流地域, 마-江原 南部地域, 마-湖南地域)

朝鮮後期 최대의 移住地域이었다. 연 강수량이 1,200mm 이상이며, 널찍하고 비옥한 나주평야는 당시 최적의 논농사 지대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서남해안 이외에는 智異山(1,915m), 德裕山(1,508m), 內藏山(764m) 등으로 에워싸여 있어 전란을 피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이다. 倭의 수군을 격퇴한 군사기지였던 전라 좌·우수영은 서남 해안의 방비를 굳건히 했던 것이다. 특히 담양과 구례를 거쳐 남원·임실·무주·진안고원에 이르는 山間地帶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에 적당한 산간 경사지대였다(그림 3의

바).

씨족의 이입이 아주 활발했던 군현은 長水(25)·南原(35)·淳昌(41)·古阜(60)·興德(31)·靈光(44)·咸平(27)·羅州(26)·光州(33)·昌平(42)·谷城(31)·求現(26)·順天(51)·樂安(27)·寶城(51)·長興(29)·綾城(28)·興陽(25) 등 18개나 된다. 이들을 포함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씨족들의 도별·본관지별 분포를 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도별로는 경상도 340(35.6%), 전라도 303(31.7%), 경기도 118(12.4%), 충청도 76(8.0%), 황해도 64(6.7%), 강원도 24(2.5%), 평안도 2(0.2%), 함경도 1(0.1%)의 순이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합한 비율이 8할 정도인 것으로 보면 씨족들의 본관지가 비록 1차적인 移出地라고 하더라도 居住移動에는 거리의 마찰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경기도에서의 이주가 12%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중앙관료들이 失勢하여 낙향·유배한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貫鄉別로 보면, 全州(42)·慶州(33)·密陽(33)·晉州(35)가 앞서고 咸陽(22)·昌寧(22)·羅州(23)·長興(20)·淸州(19)·文化(16)·南陽(16)·坡州(15)·安東(19)·金海(19)·星州(17)·昌原(17)·南原(15) 등이 뒤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제외한다면 황해도의 延安(12)·文化·海州(13), 경기도의 竹山(13)·坡州·南陽·水原(12), 강원도의 平康(11)·충청도의 淸州 등은 전라도로 많은 씨족이 이주해간 대표적인 군현들이다. 姓貫別로는 光山 金(16)·淸州 韓(16)·金海 金(17)·竹山 安(10)·東萊 鄭(10)·咸陽 朴(13)·密陽 朴(20)·文化 柳(16)·南陽 洪(10)·礪山 宋(11)·晉州 姜(12)·水原 白(11)·完山 李(14)·杞溪 兪(10)·坡平 尹(12)·平康 蔡(11)·昌寧 曹(16)·利川 徐(11)·天安 金(12) 등이 많이 이주해 갔던 것이다. 각 씨족별 이주 회수의 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전시대와 비교해 居住地移動이 활발하면서도 이동에 작용한 요인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 2) 嶺南地域

洛東江 본류를 중심으로, 소위 慶尙右道에 속하는 대부분의 군현들이 씨족 이입에 상대적으로 앞장서 왔다. 강수량 1,000mm 이하의 地帶

표 4. 全羅道에의 道別·貫鄕別 移入된 氏族數

氏族數 道別	貫鄕別 移入된 氏族數
黃海道	文化 16 海州 13 延安 12 平山 7 豐川 7 白川 4 長淵 2 瑞興 1 鳳山 1 信川 1 (합계 64 : 6.7%)
平安道	平壤 1 寧邊 1 (합계 2 : 0.2%)
京畿道	坡州 15 竹山 13 南陽 16 水原 12 利川 11 驪興 7 江華 7 高陽 6 廣州 4 漢陽 4 陽川 4 豐德 2 陽城 3 楊州 3 橋桐 2 楊根 1 仁川 1 麻田 1 朔寧 1 積城 1 開城 2 (합계 116 : 12.1%)
慶尙道	慶州 33 密陽 33 晉州 35 咸陽 22 昌寧 22 安東 19 星州 17 大丘 14 昌原 17 金海 19 東萊 10 宜寧 9 青松 9 高靈 8 草溪 8 豐基 7 玄風 6 義城 5 仁同 5 河東 5 淸道 4 居昌 4 蔚山 4 延日 3 靈山 3 漆原 3 彥陽 2 咸安 2 善山 2 開慶 2 金山 1 軍威 1 泗川 1 安陰 1 熊川 1 永川 1 狹川 1 南海 1 (합계 340 : 35.6%)
全羅道	全州 42 光州 29 羅州 23 長興 20 濟州 16 南昌 15 靈光 14 礪山 12 南平 11 興陽 10 潭陽 10 綾城 9 寶城 8 興德 8 同福 8 長水 7 順天 7 扶安 7 金堤 5 泰仁 3 咸悅 4 沃溝 3 康津 3 茂長 4 珍原 3 樂安 3 海南 3 咸平 2 和順 2 龍安 2 古阜 1 務安 1 求禮 1 益山 1 錦山 1 龍潭 1 高敞 1 昌平 1 (합계 303 : 31.7%)
江原道	平康 11 寧越 3 原州 2 江陵 2 三陟 1 三陟 1 平昌 1 鐵原 2 平海 1 麟蹄 1 (합계 24 : 2.5%)
忠淸道	淸州 19 天安 12 洪州 9 全義 5 丹陽 5 沃川 4 公州 3 瑞山 3 忠州 3 牙山 2 林川 2 韓山 2 淸安 2 平澤 2 永同 1 恩津 1 木川 1 陰城 1 海美 1 (합계 78 : 8.2%)
咸鏡道	咸興 1 (0.1%)

註) 其他 [군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치를 알 수 없는 것들] : 公山 1 豐溪 2 尼山 1 潘南 3 錦城 8 咸豐 3 郎州 1 慎興 1 根陽 1 興城 3 高麗 1 作崑 1 豐安 1 南州 1 (합계 28 : 2.9%)

가 大邱 以東과 浦項 以北 지대에 걸쳐있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 우도는 논농사와 경지개척에 보다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尙州(78)·金山(35)·安陰(38)·榮州(29)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깊숙한 산지에 위치하여 전란을 피하기에도 좋았을 것이다. 河東(35)과 晉州(42)는 예외이다. 아무튼 嶺南地域은 高麗·朝鮮初의 尙州·安東·大邱를 중심으로 한 이주지역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그림 3의 라).

### 3) 地理的 慣性(geographical inertia)

畿湖와 中部 以北地方은 高麗·朝鮮初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김천에서 추풍령을 넘으면 도달하게 되는 永同(57)·黃澗(19)·沃川(20) 등의 일부 錦江 上流地帶는 예외이다(그림 2의 다).

함경도의 永興(30)·慈山(43)·稷城(40)·利城(28) 등은 北方開拓과 그에 따른 徒民政策의 영향으로 連鎖移住(chain migration)가 나타난 군현이라고 볼 수 있다. 戴寧江流域과 江原北部

地域은 더 이상 北方通路의 매력에 줄어들 대신 가까운 양 지역의 이남에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황해도의 文化(24)·甕津(31)이나 강원도의 金化(17)·春川(13)·原州(24)·襄陽(15) 등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前時代의 地理的 慣性이 계속된데 큰 이유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그림 3의 가·나·마).

## 5. 結 論

고려 초 血緣과 地緣의 이중의미를 지닌 姓貫이 大·小豪族들에게 부여된 이래, 이들 혈족 집단은 정치 기구나 경제 체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사회적 기반이 부침하거나 혈족적 번성에 영고성쇠가 있어왔다. 생성·발전·분화·소멸의 길을 걸어온 이들 성씨 집단은 거주지 이동을 하면서도 조상 숭배와 동족 결집 의식의 전통을 고수해 왔던 것이다.

여러 성씨 집단, 즉 씨족들의 거주지 이동은 당시의 사회가 농업 생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진 조직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農耕技術의 발달이나 土地制度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여진다.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가 비록 지배집단에 국한된 것이지만 居住地移動이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된 사실이 集約農耕으로서의 발전에 연유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사실 풍부한 강수량을 이용한 논농사 및 二毛作地帶인 영산강 유역의 湖南南部 지역이 낙동강以西地域과 함께 조선 후기 최대의 移住地域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高麗·朝鮮時代를 통털어 畿湖地方이 他貫 씨족들의 이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科田制나 職田制의 전통이 강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즉 기호 지방은 王族, 중앙 귀족이나 관료와의 연대가 강하여 通婚이 아니면 族勢를 확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陰叙보다는 科擧를 통하여 중앙 관계의 진출이 넓어짐으로써, 子孫들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꾸준히 과거 시험에 응할 수 있는 吉地를 찾아 居住地移動이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뜻이 반영된 吉地가 풍수지리의 용어를 빌어 高麗初부터 유행한 것은 과거 씨족들의 거주지 이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小白山以南의

洛東江 上流地域은 載寧江流域이나 江原北部地域과 더불어 많은 씨족들이 이주해 왔는데 小白山, 九月山 및 金剛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洛東江上流는 은둔과 피난의 適地였던 것이다.

발해의 멸망 이후, 그의 古土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려·조선시대에 이어져 내려와, 北方開拓에 힘쓰고 北境地帶에의 徙民政策이 추진된 사실 또한 居住地移動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여러 지배 혈족 집단의 경쟁과 견제로 王朝가 유지되어 온 당시의 상황과 달리, 千里長城以南地域이 高麗·朝鮮初 최대의 移住地域이 된 것은 씨족들의 居住地移動을 통해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일면이다. 北境地帶에의 이주는 그 후 조선 후기에까지 지속된다.

北境地帶나 주변의 載寧江流域, 江原北部地域 및 洛東江 上流地域 등이 高麗·朝鮮初의 주요 移住地域으로 등장한 이후, 朝鮮後期에도 많은 씨족이 이주해 간 地域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자신의 조상이 한번 거주했던 곳을 理想郷으로 향수삼아 생각하는 우리 선조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으며 과거에도 강한 地理的 慣性(geographical inertia)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 Immigration of Clans in Korea before Late *Chosun* Dynasty

Summary;

Han Suk Ock\*

After some clans, of which original places coincided with their residential places at early *Koryŏ* period, migrated to other places with various causes, they were named chiefly as *Soksŏng* clans (續姓) in the late *Koryŏ* and *Chosu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Soksŏng* clans of old documents, including *Sejong Shillok Chiriji* (世宗實錄地理志), *Tongguk Yŏji Sungnam* (東國輿地勝覽), and *Yŏji Dosuh* (輿地圖書), an attempt was made to find their important region and immigrant factor.

They immigrated apparently to the three regions which were the north frontier, the *Young-and Ho-nam* (嶺湖南), and the *Kangwŏn* (江原) region. A remarkable immigration had not been found in *Kiho* (畿湖) region. These four regions were connected with strong colonization policy,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ique, *Feng Shui* idea, and traditional land owner system respectively. However, these

factors, it is believed, interacted.

In addition to that, in the *Koryŏ* period the transportation route toward the north frontier was one of migration factors, which had effect on the immigration to the north parts of *Kangwŏn* and *Whanghae* (黃海) province.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many immigrated clans to the north frontier and the *Honam* district exhibited the distance decay effect, and there were remarkable facts that these four regions showed geographical inertia during the period of two dynasties.

It is expected that this topic about migration of clans must b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study of diffusion pattern of specific clan, and especially the distribution of *Tosŏng* clans(土姓) and *Mangsŏng* clans(亡姓). The problems about migration factors in the pre-industrial society of Korea may take geographical ideas into consideration.

---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 93-10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ŏn National University